

“이병헌 선배와 대결신...미친놈처럼 덤벼죠”

갑자기 알아봐주시니 좋으면서 떨려 부모님 '잘했어' 칭찬...가장 기쁘죠 이젠 내 편 찾기 '연애' 하고 싶어요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국적을 의심하게 할 만큼 실감나는 일본 군을 연기했다. 앞서 영화 '7년의 밤' '대장 김창수' '군함도' '박열' 등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일부 관객들 시야에 들어왔다.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외모의 소유자. 그만큼 짧지만 강렬한 인상으로 대중의 뇌리에 박힌 연기자 이정현(28)이다.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그의 연기인생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정현은 '미스터 션샤인'에서 일본군 츠다를 맡아 단번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일본인으로 착각할 만큼 자연스러운 일본어는 물론 표정과 행동 등 모든 것들이 전형적인 '악질 일본군'을 연상시켜 그의 정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

증이 컸다.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좋으면서 무섭다. 지금의 관심이 언젠가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을 테고, 분명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어느 순간 일이 풀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욕심인 걸 알지만 말이다.”

이정현은 극중 이병헌과 대립하는 장면에서 특히 화제를 모았다. 역할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자신이 명작으로 꼽는 영화 '달콤한 인생'의 주인공이자 할리우드 스타로 거듭난 이병헌과 상대한다는 중압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그저 “미친놈처럼 하자”라는 생각뿐이었다는 그는 “제 캐릭터가 약했다면 이병헌 선배 앞에 서는 것부터 자신감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관심을 받아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가족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부모에게 걸려온 전화는 그를 울컥하게 했다.

이정현은 “데뷔하고 부모님과 안부전화 외에는 자주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군인 생활을 오래 하셔서 무뎠는데 이런 분이 주변 반응을 전하려고 전화하셨더라. 어머니는 ‘잘했어’라고 얘기해주셨다.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며 웃었다.

이정현은 애초 '유도소년'이었다. 고향인 전북 김제에서 중2때부터 유도를 배웠다. 고교시절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려 했지만 아버지 설득에 마음을 다잡고 2009년 용인대 유도학과에 진학했다.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은 없었지만 유도를 하

는 순간은 즐거웠다. 유도는 인생의 버팀목이었다. 대학시절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1년도 값진 시간이었다.

“2013년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막연하게 연기가 떠올랐다. 당시만 해도 ‘난 배우야, 배우가 되고 말겠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하하!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조금씩 욕심이 나고, 연기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마사회와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해 생활이 어렵지 않았다. 2014년부터는 연기가 제 안에서 가장 컸다.”

그는 “외모 때문에 일본인이나 과거한 성격의 인물을 주로 맡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연기할 수 있는 건 이미지 덕이다. 더 많은 인지도가 쌓이기 전까지 스스로 넓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에서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고 했다.

그는 코믹 콘셉트의 광고 여러 편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한 배달 앱 광고에서 ‘우주배달부’로 출연했다. 영화 ‘군함도’를 시작하면서 맡았던 머리는 ‘박열’과 ‘대장 김창수’, ‘미스터 션샤인’으로 이어지면서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정현은 요즘 들어 ‘대장 김창수’에 함께 출연한 윤영호가 그림다고 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였는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빈자리가 새삼 크게 느껴진다는 그는 그 자리를 여자친구가 채워주길 기대했다.

“혼자 지내는 것에 적응하고 있어 위험하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 연애하고 싶다. 언젠가 나의 팬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이정현은 tvN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초대돼 독립유공자 가족들과 함께 애국가를 불렀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해시태그 킷



대한·민국·만세, 태극기를 휘날리며

연기자 송일국의 세 쌍둥이인 대한·민국·만세가 광복 73주년을 맞아 태극기를 휘날렸다. 세 쌍둥이가 베를린 장벽의 벽 앞에서 하나의 태극기를 함께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쌍둥이답게 똑같은 옷과 신발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송일국은 “우리로 진정한 광복!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광복절 #대한민국만세 #태극기휘날리며

김아중 난데없는 사망설 연애가 '지라시' 또 기승

14일 연기자 김아중이 난 데 없는 '사망설'에 휩싸여 충격을 주는 가운데 그 진원지가 이른바 '지라시'로 불리는 사설정보지 혹은 온라인 정보지였음이 밝혀졌다. 그 다음 날인 15일까지도 여전히 관련 기사들이 온라인상에 잇따랐다. 최근 이 같은 허위사실이나 루머를 담은 연애계 관련 정보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각심을 더한다.

14일 온라인상에 유포된 김아중 관련 정보지에는 'CF모델로 데뷔해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인기를 얻은 연기자가 13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아중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내용 중 관련 프로필로 충분히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정작 김아중은 해외에 머물고 있으며 신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아중 소속사 측은 관련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7월 초에는 배우 강동원이 한 여성과 교제 중이라며 당사자의 사진이 담긴 정보지가 나돌았다. 또 이달 초에도 톱스타급 남녀 배우들이 교제 중인 것은 물론 올해 가을 결혼한다는 내용의 정보지 역시 유포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

이 같은 연예인 관련 허위사실 혹은 루머를 담은 정보지가 나도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연애 관련 정보지인 인한 피해가 연기자 사망설로까지 이어지고, 관련 내용이 잠시나마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이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실제 언론매체 보도와 같은 형식을 갖춘 '가짜 뉴스'로까지 이어질 우려 역시 큰 상황. 연애계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는커녕 경각심만 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는 시선이 나온다.

연예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상류사회' 변혁 감독을 향한 우려

故이은주 관련 악플러 고소 "과거 소문 재소환 될라..."

박해일·수에 주연의 영화 '상류사회'를 연출한 변혁 감독이 자신을 둘러싼 루머를 퍼뜨리는 악플러를 이달 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2004년 연출한 영화 '주홍글씨'의 여주인공인 고이은주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던 시점에서 악성 루머가 지금껏 이어지자 13년 만에 이를 공론화시켰다.



변혁 감독

변혁 감독의 이름을 건 장편영화는 이번 '상류사회'가 '주홍글씨' 이후 14년 만이다. 주연배우들은 29일 개봉을 앞두고 작품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변혁 감독이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영화계에서는 그의 결정이 '상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변혁 감독을 향한 악성댓글의 주된 내용은 고이은주가 마지막으로 찍은 영화가 '주홍글씨'라는 사실에 기반한다. 해당 작품이 고인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주장이다.

참을 만큼 참은 감독이 10여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악플러를 상대로 대응에 나섰다. 해석이 나오지만, 한쪽에서는 감독의 선택이 오히려 과거 소문을 '재소환'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감독은 '상류사회' 제작진과 협의 아래 악플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작품과 무관한 네거티브 이슈가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해리 기자**



영화 '공작'에 등장하는 김정일 별장 내부 모습. 5개월간 제작된 실내세트. 높이만 7m에 이른다. 김정일 일가 벽화 제작에도 4개월이 소요됐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6억원 들인 '김정일 별장'...벽화 제작에만 4개월...

영화 '공작' 속 북한 어떻게 재현했나

배우 기주봉, 진짜 같은 김정일 변신 '맨인블랙' 할리우드 분장팀이 맡아

1990년대 남북한 정보 실화를 다룬 영화 '공작'이 '신과함께-인고연'의 독주를 막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실화가 만드는 목적인 울림과 영화가 구현한 1990년대 북한의 모습이 관객을 빨려들게 한다.

순제작비 165억원인 '공작'(제작사나 이퍼처스)은 1990년대 남북한은 물론 첩보전의 무대가 된 당시 중국 모습을 재현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쏟았다. "1990년대 시대적 분위기, 북한을 리얼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윤종빈 감독의 판단 아래 당시 북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고증을 거쳤다.

남한 스파이 흑금성(황정민)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의 긴장은 배가 된다. 바로 이때 스크린을 채우는 북한의 모습은 직접 북한을 찍은 외국 촬영팀이 보유한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제작진은 해외 루트를 통해 이를 구입해 영화에 넣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제작진은 1990년대 북한 모습을 담기 위해 실내 세트 제작은 물론 6개월간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넘어 대만과 중국 옌볜 로케이션까지 진행했다.

'공작'을 본 관객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각인된 장면은 흑금성과 김정일이 두 번 대면하는 김정일의 별장이다. 윤종빈 감독이 "한국영화 단일 실내세트 가운데 최대규모"라고 밝혔듯이 김정일 별장은 경기도 안성 다미세트에서 50여일에 걸쳐 완성됐다. 1200㎡(360평) 규모, 높이만 7m에 이른다. 비용도 6억원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별

장 한 벽면을 채운 거대한 김정일 일가 벽화 제작에도 4개월을 투자했다.

1990년대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기억되는 때이다. 굶주림이 만연한 당시 북한 주민의 모습을 흑금성이 목격하는 '장마당 장면'도 인상 깊다. 체제 선전 벽화가 무색하게 한쪽에선 시체 더미가 쌓여있는 이 장면은 강원도 동해에서 촬영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 가운데 남아있는 일부를 활용해 북한의 집단 주택 분위기로 꾸몄다.

흑금성이 머무는 평안북도 초대소의 외형은 진짜 북한인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 컴퓨터그래픽을 의심케 하지만 실제로는 충북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 건물이다. 배우 기주봉이 연기한 김정일 역시 실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놀라움을 안겼다. '맨인블랙3', '나는 전설이다' 등에 참여한 할리우드 특수분장팀의 작품으로 제작에 8개월이 걸렸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